
V.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의학 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자살률이 크게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는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특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 연 구는 초기단계에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는 하지만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살을 유 인하는 효과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제로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가입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실 제로 자살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실증분석결과 보험가입자들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반응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자살 을 감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령, 소득, 성 등 자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도 동일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험가입자들이 면책기간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면책기간의 조정 혹은 폐지가 자살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증분석에 근거한다면 면책 기간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자살률이 줄어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면책기간 조정이 자살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보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보험시장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일으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가입자를 발생시킨다. 면책기간의 폐지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을 최소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